

죄인에게는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롬 3:19~31

죄인 아닌 죄인

로마서 3장 10,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이 말씀처럼 깊이 공감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깨닫는 것 같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자기가 균형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쪽으로 다 치우쳐 있습니다.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으로 세월을 다 보냈고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선을 행하고 나면 내 안에서는 ‘이 도둑놈! 사기꾼’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것이 인간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또 내가 의롭게 산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오만과 교만과 위선과 허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꿩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분노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비웃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을 하나님께서 웃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파멸과 고생입니다.

사람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인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요즘 밝혀지는 이 모든 죄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까? 옛날에는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뻔뻔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자신 만만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혼이 새로워지고 양심이 새로워질 때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어쩌면 우리들이 교회에 온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차라리 이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빛을 보지 않은 사람은 거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짜가 오기 전에는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러나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꼬리를 숨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득세하고 죄가 득세할 때 빛이 오고 진리가 오면 그 거짓, 사단, 귀신들은 울며 통곡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죄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19절에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내게 임하면 그 숨겨져 있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드러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율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드러나면 세상의 죄가 다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에 대한 변명도 궤변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나타나면 온통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드러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아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죄만 더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마음속에서는 ‘사기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끊임없이 선이란 것으로 나를 가장하고 위장합니다. 신앙이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어떤 행위, 금식이나 헌금이나 선행 이런 것들을 행하고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나 뒤로 돌아서면 마음속에서 ‘위선자’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행위의 구원 - 절망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20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에는 죄를 제거하는 힘이 없습니다. 다만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시편 19편 7,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과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나게 합니다. 말씀이 오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숨어 있는 죄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서면 숨이 막힙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온통 나의 숨어 있는 죄들, 이전에는 드러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죄들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닦을 때 걸레가 더 더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자동차 걸레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자동차를 닦을 때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를 더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더러운 인간이 무엇인가 깨끗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이 닦아야 깨끗하게 닦입니다. 손이 더러운 사람이 치우면 더러움이 더 번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어떤 착한 것으로, 인간의 구제로 무슨 좋은 일을 해 보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 선을 행하겠다고 아등바등하면 죄만 더 짓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사랑하겠다고 하면 더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도 율법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느끼는 것은 오로지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이러한 자기 경험을 심각하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서 7:18, 19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은 행하는 도다”

“내 안에는 선이 없구나. 오직 죄 밖에 없구나.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 내가 원하는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 아닌 예수 믿고 나서, 성령세례 받고, 구원받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 죄 안 짓고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유혹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주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성자가 또 존재합니까? 누가 성자입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실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다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은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면서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절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금식도 하고 노동도 하고 종교적인 것들을 다 들어주면 무엇인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되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불교계의 대표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잘 때도 앉아서 잤다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종교는 인간에게 사기를 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구원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무거운 짐을 지워 주는 것입니다.

나타난 의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기독교는 썩어집니다. 기독교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기독교적인 예식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새벽 기도하고 성수 주일을 지키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기쁨이 되는 것이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구원을 받

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구제도 인간을 절망케 합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도 인간을 절망케 합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도 인간을 절망케 합니다. 인간이란 마치 끝없는 사막에 던져진 존재와 같습니다. 목마른 채 걸어가야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버티고 견디면 계속 되는 태양 아래서 길도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한달 두달을 아무리 헤매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구원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절대 절망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도 있고 부인도 있지만 죽을 때는 혼자입니다. 대신 못 죽습니다. 고독하게 그 마지막을 자신이 살아야 합니다. 옆에서 사람이 아무리 울어 주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홀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자식이나 남편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신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포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안 죽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면 되니까 안심이 되지만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입니다. 누가 와서 나를 건져주었으면, 누가 와서 나를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갈망을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구조대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것이든, 선행을 한 사람이든지 간에 이 죄 문제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21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창세기, 출애굽기 등의 율법서에서의 예언된 그분이고 이 의는 네 예언자가 말했고 열 두 소 예언자가 말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손을 펴신 것입니다. 이것이 21절에 나타난 한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의를 주신 것입니다. 이분은 나의 노력과 상관 없이 오셨습니다. 나는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란 충격입니다. 만약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충격이 없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전율하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사막에 죽어 가는 사람이 헬리콥터가 와서 구해 주는데 “그래! 내가 한번 타보지.”하고 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긴장감에서부터의 자유함, 이제 살았다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런 감격이 있는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희미합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이 없습니까? 구원의 진실한 느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바다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원자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21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어떻게 구원이 내게 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구원자가 내게 찾아 왔을 때 그것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구원자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다에 떠 있던 어떤 배에 불이 났습니다. 점점 불이 배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상대 쪽에서 구원선을 보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에게로 뛰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소리 질러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요청을 안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의 특징은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심각한 죄의 문둥병을 앓고 있으면서 귀가 빠지고 코가 빠지는데도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도 못합니다. 소리를 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고독하면 고독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해야 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으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때 구원자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건 감옥밖에 있는 사람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죄인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씻어져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없이할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2천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니다. 그분은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들이 요청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주님 내가 당신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대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24절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아무리 조른들 돈이 없다면 어떻게 돈을 주겠습니까?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먹을 것 달라고 해도 그 사람은 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없다면 예수님께 아무리 가 봐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는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 죄의 옷을 벗겨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줄 수

있는 그 구원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구원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럴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구원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값없이’란 무슨 말입니까? ‘공짜로’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돈 주고 산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면 그것은 구원 아닙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봉사함으로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봉사는 구원의 대가가 아닙니다. 헌금함으로 대가를 치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대가를 많이 치른 것처럼 여기고, 헌금을 안 낼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전도 많이 하면 어깨를 펴고 다니고, 봉사 많이 하면 어깨를 펴고 다닙니다. 그럴지 못할 경우에는 어딘가 창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구원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도 적게 해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혜로, 공짜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값을 매겨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평가 속에 들어갈 때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감사하고 주장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남 비판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대신 지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대신 지고, 다른 사람의 질병을 대신 지고 그는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의인이 된 죄인

마지막으로 구원하심을 받은 자는 다른 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의인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죄인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고 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무거운 짐을 덜어 주었고 누군가 나의 죄의 옷을 벗겨 준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이 기쁨. 눈물을 흘리며 “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축복과 특혜를 주십니까? 내 죄가 녹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구원의 기쁨 속에서 능력 있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성전 끝에서 기도했던 세리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